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61
----------	-------

제출년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박은정, 김유숙, 이지화,
이진분, 한갑수, 한명훈,
설호영, 황은화, 유재수,
최찬규, 선현우, 송바우나,
박은경, 최진호, 김진숙 의원
(18인)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급증하여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개정을 촉구 건의함.

2.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범죄 피해 미성년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 ~ 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많았음.
- 현행 약취·유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초

기 단계부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안산시의회는 더 이상 아동 약취·유인 범죄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 및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아동 약취·유인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9월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329건, 2024년에도 30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수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도 2020년 14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피해 미성년자를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가 267건(20%), 6세 이상 ~ 12세 이하가 563건(42%), 12 ~ 15세 182건(13%), 15 ~ 20세 152건(11%), 연령미상 188건(14%)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 ~ 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현행 약취·유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도’ 만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경찰의 임의 현장 종결이 이루어지는 등 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전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회성 대책 마련이 아닌 아동 약취·유인 범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더 이상 아동 약취·유인 범죄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 및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미수범 처벌을 강화하고 범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재범 방지 및 관리 체계 의무화를 위해 아동 약취·유인 범죄자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및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라!

2025. 12.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